전일빌딩245, 민주주의 열망 담은 예술공간으로

6월11일까지 1층 '나에게 민주주의는 OOO이다' 전시회
지역 예술가 15인·오월어머니들, 회화·사진 합동 전시
서울 이어 광주서 '내가 뽑은 독재자' 정치풍자 작품도

5·18민주화운동의 증인이자 5·18 사적지인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가 시민과 예술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예술행동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예술을 통한 사회변화의 메시지를 던진 'A4액션 2025: 나에게 민주주의는 OOO이다' 전시회가 오는 6월11일까지 전일빌딩245 1층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A4액션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갤러리생각상자가 후원하는 예술행동 프로젝트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전환기를 지나며 시민·예술가들이 느낀 분노, 우려, 희망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당시의 아픔을 직접 겪은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함께 전시에 참여해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고근호, 선안희, 전혜옥 등 지역 예술가 15인의 회화·사진·드로잉 작품과 오월어머니 8인의 작품 38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월어머니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직접 들고 찍은 사진도 전시,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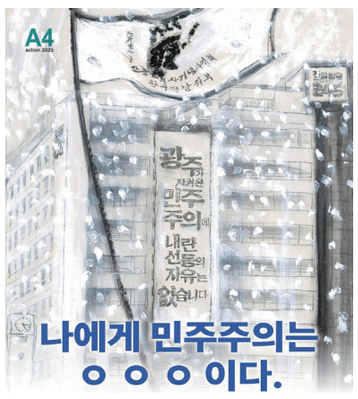
김윤환 작가의 정치풍자화 전시인 '내가 뽑은 독재자' 시리즈 30점도 전시된다. 기표 도장을 활용한 독창적 작품으로, 서울 전시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개된다.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A4 액션 202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출품된 시민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작품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A4 액션 2025 온라인 플랫폼(www.a4action.io)'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전시회는 전국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전시"라며 "예술행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장을 넓히고 전일빌딩245를 시민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와 예술의 가치를 함께 조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강진영화관, 30년 만에 다시 문 열었다

17일 개관식… 김의성 배우 참석, 2일간 무료 시사회

강진군이 17일 강진읍 어울림센터 준공식과 함께 3층에 조성된 '강진영화관'의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개관은 1990년대 초 강진극장 폐업 이후 30여 년 만에 군민 곁으로 돌아온 영화관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깊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진 출신 배우 김의성이 참석해 영화 로비 상영 전 무대인사를 통해 "부모님의 고향에 이렇게 멋진 문화공간이 생겨 무척 뿌듯하다. 강진영화관이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관 기념으로 17~18일 이틀간 군민 대상 무료 시사회가 진행되고 특히 지역 내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아동 30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애니메이션 '출동! 왕엉덩이 히어로' 특별 상영도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영화관은 총 2개관 88석 규모로 조성돼 2D 및 3D 상영이 가능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다. 팝콘 등 간식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요금은 일반 영화 7,000원, 3D 영화 9,000원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 경로 우대 등은 할인 적용 때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시중 영화표 가격이 2만 원을 넘고 OTT 플랫폼이 대세인 요즘, 강진영화관은 합리적인 가격과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제시할 전망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영화 한 편이 사람에게 주는 감동은 크다. 군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강진영화관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제8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개최

올해 공모 주제 '일상 속 기억을 디자인하다'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제8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의 막을 올리며,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감각적인 고흥분청사기 도자 작품을 찾는 여정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 주제는 〈일상 속 기억을 디자인하다〉이다.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적 미감을 바탕으로,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실용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작품을 발굴하고자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1인 1작품에 한해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완성도, 창의성, 예술성, 역사성, 실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총 30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3,800만 원 규모로, 대상 1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최우수상은 국가유산청장상, 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상, 장려상부터 입선까지는 고흥군수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며, 관람객들에게 고흥 도자문화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공모전 담당자(☎061-830-5672)에게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통 도자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사용성과 미적 가치를 겸비한 작품을 통해 고흥분청사기가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알록달록 풍선쇼' 운영

오는 30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연 마련

광양희망도서관이 오는 4월 30일 오후 5시, 도서관 꿈나무극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4월 희망문화놀이터 '알록달록 풍선쇼'를 운영한다.

'희망문화놀이터'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다. 도서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4월에는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을 기념해 더욱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고에듀스 공연팀의 '알록달록 풍선쇼'는 지팡이 꽃 등 다양한 요술 풍선을 활용한 마술 공연으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의 '문화행사 안내'에 안내돼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희망도서관(☎061-797-4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도서관을 찾아 함께 웃고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책을 두 배로 대출할 수 있는 '독서 두 배로 대출' ▲연체자에 대한 '대출 정지 해제' ▲사서가 직접 고른 도서를 소개하는 '사서 컬렉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 남구,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밤 산책'

11월 말까지 매월 한차례씩 총 8차례 운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인문학 중흥과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국내 최고의 강사가 총출동하는 인문학 밤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인문학 밤 산책 프로그램이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오는 22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매월 넷째주 화요일과 둘째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총 8차례 문을 열며, 구청에서 인문 도시 구현과 인문학 대중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각 분야 최고 권위자 8명이 강사로 나선다.

먼저 오는 22일 열리는 첫 번째 강단에는 박준영 변호사가 오른다.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의 주인공으로, '공존-사건의 배경과 이면'이라는 주제로 남구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위를 봐요' 저자인 정진호 작가는 오는 5월 9일 화요일에 남구를 찾는다. 어린이날 시기에 맞춰 특별히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다.

과학 분야 전문가인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오는 6월 24일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지식과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흥미로운 소재 발굴과 뛰어난 입담으로 여러 방송사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으며, SF 소설가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갖춘 인물이다.

7월 22일에는 옥효진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돈은 어떻게 벌까요?'라는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교육의 현실 등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임채일 기자